

4일만에 리턴매치...페퍼스 "이번엔 흥국생명 넘는다"



야스민

프로배구 V리그 3라운드 시작



광주 여자프로배구단 A페퍼스가 4일 만에 흥국생명과 맞붙는다. 페퍼저축은행 A페퍼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3라운드 첫 경기가 5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 1일 페퍼스는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폴세트 점전 끝에 2-3으로 패한 바 있다. 페퍼스 조 트린지 감독은 "이날 경기에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경기 준비하겠다"고 전했고, 흥국생명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5연패 늪에 빠진 페퍼스에는 '연패 탈출'이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세 명의 선수가 공에 맞거나 크게 넘어져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던 만큼 페퍼스 입장에서는 '다치지 않는 경기' 또한 중요하다.

앞선 경기에서 박정아는 흥국생명 엘레나의 스파이크에 맞은 오른쪽 볼을 차가운 물병으로 식히기도 했고, 필립스는 김미연의 공에 눈을 맞았다. 수비 도중 오른쪽 다리를 다친 야스민은 잠시 정강이를 매만지는 모습을 보였다.

1위 흥국생명을 상대로 5세트 듀스까지 만들며 치열한 경기를 펼쳤던 페퍼스가 과연 인천 원정경기에서 3라운드 첫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경기에서는 2라운드 MVP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상은 2라운드 동안 135득점을 올리며 흥국생명의 2라운드 전승에 기여한 김연경이 받는다.

오늘 1위 팀 상대 원정경기에서 승점 사냥 나서 야스민·박정아 '쌍포' 5연패 탈출 이끌지 주목

한편, 3라운드에 돌입할 코트에는 각 팀들의 뜨거운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일 열린 3라운드 첫 경기에서 한국전력을 상대로 완패를 당하며 구단 역사상 최다 연패기록을 쓴 2019-2020시즌과 동일한 12연패를 기록했다. 오는 6일 OK금융그룹을 만나는 KB손해보험은 '연패 탈출'과 '최다연패 신기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오는 7일에는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1위 쟁탈전이 펼쳐진다. 10승 3패(승점 27)로 현재 남자배구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카드와 8승 4패(승점 25)로 2위인 대한항공의 시즌 세 번째 대결이다. 정상을 두고 우리카드가 지금의 자리를 굳건히 할지 대한항공이 왕관을 뺏겨 될지, 배구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도 오는 7일 맞붙는다. 두 팀 모두 현재 아사이트 히터 고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시아쿼터로 선발한 위파위가 부진상을 당하면서 태국으로 떠난 이후 발목 부상 회복 마무리 단계에 있던 김주향을 3일 선발로 기용했고, 고민지를 교체 자원으로 활용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라운드 마지막 경기인 현대건설전에서 이예림을 선발로 기용했고 이후 전세안과 타나차를 교체로 투입했지만 1-3으로 패한 바 있다. 7일 경기에서 현대건설은 6연승에 도전하고 한국도로공사는 3연패 탈출에 나선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정아

광주 어등초,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 우승

초등 고학년 남자부 정상 포효

2023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에서 광주 어등초가 초등부 고학년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 어등초는 지난 2-3일 이틀간 KOVO 유소년 배구교실 초등학교 51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에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초등부 고학년 남자부 승리를 거머쥐었다.

초등3-4학년 혼성으로 구성된 초등부 중학년에서는 남양주 다산초가, 초등부 고학년 여자부에서는 대구 강림초가 우승했다.

대회 MVP로는 광주 어등초 김태형 군을 비롯해, 남양주 다산초 김민근 군과 대구 강림초 장운지 양이 선정됐다.

MVP를 수상한 김태형 군은 "이번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 어등초는 고학년 남자부 우승으로 이간 정희정 교사는 "그간 2위에만 머무르다 처음으로 우승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전했다.

고학년 여자부 우승을 거머쥐며 MVP로 뽑힌 장운지 양은 이번 클럽대회 우승을 발판 삼아 엘리트 선수로 진화할 예정이다.

장 양은 "6학년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는 포부를 밝혔다.



광주 어등초가 2023 김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에서 초등부 고학년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한편, 2013년 시작된 KOVO컵 유소년 배구대회는 전국 유소년 선수들이 각자의 실력과 팀워크를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어 왔다. 한국배구연맹 강만수 유소년육성위원장은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배구 꿈나무들이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광주 어등초는 이번 대회에서 9연승을 거두며 3년 연속 한국 우승을 견인했던 신진서는 농심배에서 11연승을 이어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7개월 만의 복귀 우즈, 세계 랭킹도 '경풍'

430계단 상승해 898위

7개월 만의 필드 복귀전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낸 타이거 우즈(미국)의 세계랭킹이 경풍 뒤였다.

우즈는 4일 발표된 남자 골프 주간 세계랭킹에서 898위로 올라섰다.

최장 기간 세계랭킹 1위를 꺾는 등 일인자를 호령하던 전성기 때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지난주 1328위보다 무려 430계단 뛴 건 좋

은 소식이다. 지난 4월 마스터스 때 중도 기권한 뒤 997위였던 우즈의 세계랭킹은 대회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락해 1000위 밖으로 밀렸다.

우즈는 세계랭킹 최정상급 선수 위주로 20명만 출전한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18위에 그쳤지만, 순위 포인트는 2.4 점을 획득했다.

지난해 세계랭킹 15위까지 올랐으나 LIV 골프로 이적한 뒤 82위까지 밀렸던 호아킨 니란(칠레)은 지난 3일 DP 월드투어 호주 오픈에서 우승

하며 59위로 상승했다. 니란은 올해 메이저대회에 세계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모두 출전했지만, 내년 메이저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려면 다시 50위 이내에 진입해야 한다.

니란과 마찬가지로 LIV 골프로 옮긴 뒤 106위까지 내려앉았던 더비미스터(남아공)도 3일 끝난 DP 월드투어 남아프리카 오픈 정상에 오른 덕분에 77위로 올라섰다.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세계랭킹 1위를 더 굳게 다졌고, 로리 매클로이(북아일랜드), 온람(스페인),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 등 상위권은 변함 없었다.

/연합뉴스

올 시즌 슈퍼레이스 총관중 13만5224명

지난해보다 2만5000여명 늘어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잔치인 슈퍼레이스에 올해 13만5224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레이스는 4일 "올 시즌 치른 8차례 레이스에 총 13만5224명의 관중이 모였다"라며 "지난해보다 전체 이벤트 횟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관중은 2만 5000여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승팀인 아트라스BX가 모기업인 한국타이어의 대전공장 화재 여파로 타이어 공급에 차질이 생겨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약재를 감안하면 관중몰이에 성공했다는 게 슈퍼레이스의 분석이다.

또 전체 레이스별 평균 관중(2만2537명)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2만2375명)의 수치를 뛰어넘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2015년 이후 연평균 관중 성장률 21%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레이스가 펼쳐지는 서킷 별로도 최다 관중 기록을 썼다.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는 3라운드 때 포뮬러1(F1) 한국 그랑프리 이후 최다 관중객(1만7441명)이 모였고, 인제 스피드יום은 4라운드 때 서킷 개장 이래 가장 많은 관중객(1만5354명)을 모았다.

여성 팬들의 증가도 눈에 띈다. 여성 티켓 구매자가 전체 판매분의 35.4%를 차지하며 2017년 대비 21.4% 증가, 모터스포츠가 남성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깼다.

또 35~44세가 전체 티켓 구매자의 44.3%를 차지하고, 어린이 티켓 판매 비율도 23.4%로 나타나 가족 단위 관중객이 경기장을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시즌 슈퍼레이스는 내년 4월 20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1라운드 레이스로 시동을 건다. /연합뉴스

'수호신' 신진서, 벼랑 끝 한국바둑 구출

농심신라면배 세얼하오에 불계승

'수호신' 신진서(23) 9단이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 바둑을 구출했다.

신진서는 4일 부산 호텔농심에서 열린 제25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최강전 2라운드 최종국인 제9국에서 중국의 세얼하오(25) 9단에게 흑 불계승했다.

이번 대회에서 설현준 8단과 변상일·원성진·박정환 9단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패했던 한국은 이로써 최하위로 탈락할 위기에서 힘겹게 살아났다.

앞서 22~24회에서 10연승을 거두며 3년 연속 한국 우승을 견인했던 신진서는 농심배에서 11연승을 이어갔다.

이날 흑을 잡은 신진서는 대국 초반부터 세얼하오를 몰아붙이며 판을 주도했다.

포석이 끝나자마자 좌변에서 상변으로 이어진 백 대마를 과감하게 절단한 신진서는 맹공을 펼쳤다. 대마가 다 잡힐 위기에 놓인 세얼하오는 좌변 꼬리를 떼어주고 힘겹게 탈출했다.

그러자 신진서는 상변과 우변의 대마를 다시 절단해 공세를 이어갔다. 세얼하오는 다시 대마가 잡힐 위기에서 바뀔치기를 시도했으나 패색이 짙게 드리우자 결국 돌을 던졌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에 첫 승리를 안긴 신진서는 세얼하오와 통산 전적에서도 8승 2패로 앞섰다. 세얼하오는 농심배 최다 연승 기록에 도전했으나 끝내 신진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진서마저 패했다면 최하위로 탈락할 뻔했던 한국은 내년 2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최종 3라운드에서 역전 우승을 기대하게 됐다. 신진서는 3라운드 첫판인 제10국에서 일본의 마지막 주자인 이바타 유타 9단과 대결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봄
- 2관 서울의 봄
- 3관 싱글 인 서울
- 4관 서울의 봄, 겨울왕국 2
- 5관 서울의 봄
- 6관 서울의 봄, 겨울왕국
- 7관 싱글 인 서울, 괴물,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8관 싱글인 서울, 프리디의 피자 가게,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무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